<도전'93 :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법정관리의 아이러니

작금, 석유화학산업계에는 불황카르텔과 아울러 대한유화의 법정관리 신청 수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불황카르텔은 경제기획원의 불가방침과 상공부의 적극 추진방침이 맞물려 치열한 논쟁이 벌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 상황이 불황이라고 볼 수 없고 수요가 늘고 있으며 석유화학기업간 합일점 도출이 거의 절망적이어서 「물 건너간 것」으로 치부해도 될 듯싶다.
특히, 삼성·현대 등이 NCC 가동률 조정을 통한 수급조절에는 절대 반대하면서 한사코 폴리올레핀의 국내 가격인상이라는 「특혜」만을 바라고 있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문민정부의 입장에서도 결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이 불황을 극복해 경제회복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 거대 재벌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질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이같은 정부의 난처한 입장은 「대한유화」라는 특정기업의 「법정관리」 수용여부 결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석유화학 경기를 현실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2년동안은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라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96년경에 가서야 85~86년의 평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대한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면 절망적인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때문에 대한유화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 차선책을 강구할 수 있으나, 국민 일반의 동의를 얻기 힘들고 또한 석유화학 산업계의 강력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유화의 법정관리는 각각의 반발과 기업회생의 가능성을 여러모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나 정부나 법원이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 지적해두고 싶다.
즉, 정부 입장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한 정책결정으로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도가 빈번한 상황에서 연간 매출이 3000억원 선에 이르는 대한유화가 부도를 낼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파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겠지만, 기업경영은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기업의 경영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기업경영은 자율에 맡겨야 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유화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초창기에 일본과 합작으로 설립돼 PP와 HDPE를 공급, 국내 플래스틱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80년대 중반이후 91년초까지 5~6년의 호황시 많은 이익을 낸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유화는 호황시의 수익을 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예치하기 보다는 합작선간의 나눠먹기로 소진, 투자여력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황시에는 배급식의 영업에 만족, 특수 그레이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을 거의 하지 않아 오늘의 난국을 맞이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대한유화의 경영부실에 어떠한 책임도 느낄 필요가 없으며, 그들 경영진이 보여준 자세는 국민이나 채권자들이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한유화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부실기업들이 너나없이 정부의 과보호에 안주하려는 사고에 젖어들 수 있고, 경영자 스스로의 책임의식 결여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대한유화의 실질적 독점경영자인 이정호씨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했느냐 하는 것이다.
세간의 소문대로라면 가든호텔·뉴서울호텔·국도극장 등 서울의 요지에 수많은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상태에서 경영자로서 책임의식이 있다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선 회사

경영난 타개에 힘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여타 어느 경영자도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방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회사는 망해도 경영자는 자손만대에 놀고 먹을 수 있는 해괴망측한 「유산」이 답습하고야 마는 것이다.
셋째, 대한유화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8000여억원의 부채를 동결, 이자 지급을 유예시켜준다면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법정관리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갖추는 아이러니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한유화의 부채 8000억원에 대한 연간이자는 1000억원에 상당할 것이고, 매출 3000억원대의 기업이 1000억원의 지출을 동결하게 되면 그 경쟁력은 최우량으로 나타날 것이며, 오히려 연간 500억원 안팎의 흑자를 내는 기현상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량 석유화학기업도 연간 300억~50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는 판에, 어느 누가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경영은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에게 있다 !

<화학저널 1993/11/1>